

직원 월급도 못 주는 판에… 항공사 지원, 産銀 문턱에 ‘덜컥’

긴급 지원이라면서 심사 하세월… 조여오는 공멸 위기

고정비용은 발생하는데 수익 절벽
국제선 운항 전면중단한 항공사도

정부-산은, LCC에 긴급융자 지원
일반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신생 등 규모작은 항공사 불멘소리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며 항공업계가 공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 지원이 숨통을 트이게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공업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아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고정비용 대비 들어오는 현금이 없자, 임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항공사로서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대책으로 들고 나왔지만 신용·담보 등을 충족하는 항공사만 가능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7개의 저비용항공사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대



국적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각 사

한항공은 국제선 기준 기준 124개 노선 가운데 89개를 운휴해 주간 운항횟수의 80% 이상이 중단됐다. LCC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은 아예 국제선이 ‘셧다운’된 상황이다. 한국인의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가 109개국에 달하면서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임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 재무 상태가 심각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임직원의 급여를 40%만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언제 지급할지 아직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회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사내

에서는 3월과 4월 급여도 미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스타항공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에 대해 지금 당장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태다.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스타홀딩스로부터 이스타항공의 주식 497만 1000주(51.17%)를 545억 14만 7920원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양해각서(MOU)를 맺은지 약 두 달 반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행 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 원을 제외하고, 차액 약 430억 원은 취득 예정일자인 오는 4월 29일에 전액 납입 예정으로서 그 전까지는 이스타항공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항공사 대부분이 비운항하며 현금흐름이 끊기자 결국 정부는 국내 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까지 진행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 원의 긴급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그 자금의 대출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긴급지원의 성격임에도, 일반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대로 그나마 규모가 큰 항공사에 한해서만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LCC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사실 항공업 주체 부서다 보니 도와주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와 산업은행에서 심사 자체를 긴급 경영자금 지원인데도 일반 심사를 하듯이 진행하고 있다”며 “솔직히 신생항공사 등 담보도 없고 뒤에 모기업도 없는 곳에는 심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물론 특정 항공사를 짚어서 통보하지는 않았는데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에서는 그런 입장인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 9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자금과 관련해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지원 키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최소 2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해 일정 금액을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나온 최대 3000억 원의 긴급융자와 별개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아직 신디케이트론 방식의 지원에 확정된 바는 없으며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수지 기자 sjskim2935@metroseoul.co.kr

한진그룹 “사상 최악의 위기… ‘조원태 체제’ 절실” 호소

전문적 식견·경험 가진 경영진 필요
‘물류 전문가’ 조원태 회장이 적임자
직원과 지속 소통으로 신임 두터워
“조현아 주주연합은 투기 세력” 비판

한진그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를 초유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전문경영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기 타개 등의 명분을 내세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그룹이 현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 124개 중 89개 노선을 운항 조치하는 등 80%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 중단해 여객기 145대 중 100여 대가 운항하지 못하는 유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

한진그룹은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항공 산업을 살려내기 위한 방안



한진그룹,

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 외교 경색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서도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국제항공운송 협회(IATA)의 집행위원회(BOG) 위원이자 스카이팀 회장단의장으로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그룹 내선 소통을 우선시하며 임직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또 “이미 조 회장을 중심으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등 계열사에 유관경력 3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문경영체제를 갖췄다”면서 “투기 자본이 아닌 위기 극복 능력을 가진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진그룹은 “반면 조현아 주주연합이 내세운 사내·사외이사의 면면을 보면 과연 조현아 주주연합이 ‘전문경영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조현아 주주연합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물들만 후보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조현아 주주연합의 진의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에어버스 리베이트와 관련해 “조 회장과 무관하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주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오너는 횡령’서 계속

잇단 ‘오너리스크’에도
오너일가 지분 47.21%

시가배당률은 0.9%, 배당금 총액은 60억 원이다.

삼양식품의 배당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2015년 주당 50원, 2016년 150원, 2017년 250원, 2018년 400원, 2019년 800원이다. 배당금 총액도 2015년 3억 7700만 원, 2016년 11억 3000만 원, 2017년 18억 8000만 원, 2018년 30억 1000만 원, 2019년 60억 원으로 늘었다.

삼양식품이 배당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배당금 상향 등 주주친화책이 선호 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오너 일가 지분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 정책은 상장사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그러나 오너일가 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는 삼양식품에서는 전 회장과 김 사장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배당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올 수 있다.

전 회장 등 삼양식품 오너가는 현재 지분이 47.21%에 달한다. 최대 주주인 삼양내츄럴스(33.26%)를 비롯해 전 회장(3.13%), 배우자인 김정수 사장(4.33%) 등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다. 오너일가는 이번 현금 배당으로 28억 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다.

/김민지 기자 kmj@

을 모색하고 싶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명분도 던져버리는 사모펀드, 업종과 상관없는 투자로 회사를 흔들어대는 투기 세력의 야욕은 그룹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진칼이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 내세운 사외이사 후보는 지배구조·재무구조 개선, 준법 경영 등 기업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며 “사내이사 후보는 항공업계 위기를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송 물류 전문가로 진영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칼은 사외이사 후보로 금융·재무전문가로써 금융위원회 위원장

을 지낸 김석동 후보,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인 박영석 후보, 자본시장 전문가로 마이다스PE 대표인 임춘수 후보, 법률전문가 최윤희 후보와 이동명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그룹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재무·전략 전문가인 하은용 재무부문 부사장을 내세웠다.

여기에 사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린 조원태 회장의 전문성과 그룹 내 신임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17년간 여객, 화물, 경영전략, 기획, IT, 자재 등 대한 항공 핵심 부서 근무 경험을 축적한 항공 물류 전문가”라며 “항공 산업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맡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니다”라고 3자 연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2018년 창사 이래 최